

방송 메시지 전달 속도의 통시적 비교에 관한 연구: 라디오뉴스 전달 속도 분석을 중심으로

박경희(KBS)

<차 례>

- | | |
|--------------------------|-------------------|
| 1. 서론 | 2.5. 방송언어 선행연구 |
| 2.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 2.1. 방송메시지 전달의 특성 | 3.1. 자료 수집과 조사대상 |
| 2.2. 뉴스전달과 음악의 유사성 | 3.2.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 |
| 2.3. 정보량과 수신자의 선호도, 수용한계 | 4. 연구결과 |
| 2.4. 한국 보도방송언어의 시대적 분류 | 5. 결과에 대한 논의와 제언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Diachronic Change in the Transmission Rate of Broadcast Messages

Kyung-hee Pa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e of the times on the transmission rate of broadcast message. In order to find out the research results, I collected past recorded news tapes and selected 22 radio news out from era of Japanese Imperialism, 1950's, 1960's and contemporary age. Next I measured each announcer's reading rate, and compared change on news-reading rate between present and past approximately 50 years ago. The results of study with such procedures and methods are as follows : the average reporting rate of newscasters in each era is different. From these results, we can easily grasp diachronic change in the transmission rate of broadcast message. Namely, the results show us that present announcers read news faster than the group of past era of Japanese Imperialism by 68%.

* Keywords: News reading rate, Diachronic change on the transmission rate of broadcast message.

1. 서론

‘Global village’[1]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현대인들은 정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국내외에서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매일 시시각각으로 양산되는 수많은 뉴스를 5분 단위에서부터 길어야 3,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소화해야하는 방송 뉴스제작자들에게 시간의 제약은 숙명 과도 같다. 기자들은 주어진 시간에 되도록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고 뉴스 편집자는 뉴스 아이템이 한 개라도 더 송출되기를 원하며, 뉴스 앵커나 캐스터는 한 기사라도 더 전달되도록 유창하게 낭독하는 데 급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뉴스 제작 관행이 과연 현재와 같은 시청자 주권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음성언어로 전달되는 정보 메시지 전달 속도가 시청자의 뉴스 이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TV와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매체로 뉴스를 청취하는 조건은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와 달리 일회적이고, 음성전달자(voice communicator)가 개입되어 있기에 음성 전달자의 호흡과 발음, 전달 속도 등과 같은 물리적인 제약으로 메시지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2]는 텔레비전이 시청자의 시선을 끄는 이유가 순간마다 변화를 거듭하는 자극적 영상과 음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바로 그와 같은 빠른 메시지 전달 속도로 인해 시청자들은 메시지의 내용을 충분히 시각적으로 지각하고 인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정보매체로서의 텔레비전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싱어는 텔레비전 광고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려 했으나 그의 지적은 TV를 비롯한 방송뉴스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3].

또한 전달 속도와 관련되어 뉴스 공급자인 기자와 수용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시간일지라도 기자는 취재로부터 기사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건을 파악하여 전달하는 반면 수용자는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수동적으로 전달받을 뿐이라는 점이다. 바로 이 부분이 기자를 비롯한 뉴스 앵커나 캐스터 등 뉴스 공급자들이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전달 방식은 수신자에게 상당히 큰 메타 메시지를 지니도록 만든다. 무엇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전달 방식이 일방적이므로 빠른 속도는 흥분된 느낌을 전달하고 때로는 그 흥분이 공포나 약탈의 느낌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4]. 실제로 1983년 여름 북한 공군의 이웅평 상위가 미그기를 몰고 귀순했을 당시 민방위 본부에서 실제 상황이라고 긴박하게 방송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던 사건은 방송에서 전달자가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을 경계하는 사례로 곧잘 인용되곤 한다.1)

또 [5]는 폴 비릴리오(Paul Virilio)가 주목한 속도가 가진 폭력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디지털 방송 시대에 텔레비전의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화면의 속도는 허구와 현실의 차이를 무력화시키고 사물의 소비 속도와 사고방식에 즉흥성과 순간성을 강조하여 일상적인 삶의 방식마저도 변화시키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속도가 너무 느리면 송신자 측에선 시간의 제약을 갖는 방송의 특성상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적어지고 수용자 측에선 커뮤니케이터의 유창성이 떨어지면서 리듬과 운율 면에서 활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어 주의 집중이 분산된다[4](p.190).

그러므로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적절한 속도의 개념이 전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화 속도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방송 수용자의 권리 차원에서 콘텐츠 못지않게 중요한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관계 차원에 있어서 메시지 전달 속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유비쿼터스(ubiquitous)적인 존재가 되어 방송매체의 영향력이 인쇄매체의 영향력을 능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음성언어로 전달되는 메시지 전달 속도는 문화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란 결국 대상에 대한 ‘의미부여(signification)’의 전략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은유와 환유, 또 비유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화자는 주체로서 우위에 서게 되고 청자는 인지정보 처리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단순히 객체로서 고정화되고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미디어 및 문화의 핵심 담론이 주체와 객체의 혼용이라고 할 때 메시지 전달 속도의 문제는 미디어 및 문화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방송 화법에 있어서 속도 문제를 고찰하는 것은 방송은 물론이고, 문화와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뉴스 전달 속도와 과거 일제 강점기와 50년대와 60년대 뉴스 속도간의 통시적 변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운율적인 측면에서의 방송언어의 변천에 대해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2006년 3월 21일 소방 방재청 민방위 담당 요원 대상 강연에서 경보통제소장인 최관식 서기관의 증언에 따르면 휴가를 나왔다가 긴박한 방송을 들은 평택 K55 공군 사령부 소속의 조종사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함.

2.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2.1. 방송메시지 전달의 특성

방송 전달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확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송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송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메시지 전달 속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화자가 방송이라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익명의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수용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 ‘전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큰 제약이 따른다. 우선 정해진 방송 시간의 제약이 있고, 방송 메시지 전달은 기본적으로 음성언어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음성언어를 실현할 때 호흡(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회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6].

청각에만 의존해서 전달되는 방송 메시지 가운데 가장 대표 격인 ‘라디오 뉴스’를 예로 들면 뉴스 캐스터는 항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방송 메시지의 전달은 기본적으로 음성언어로 전달된다. 둘째, 제한된 시간 안에 일회적으로 메시지 전달이 완수되어야 한다. 셋째, 되도록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수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잡음의 발생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음성 전달자는 수신자의 이해력과 정보 전달량의 최적 접근점을 찾는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을 고려하면 메시지의 효율적인 전달은 메시지의 구성과 전달 방식에 크게 좌우되는데 그 중에서도 음성언어로 전달되는 메시지 전달에서 전달 속도는 수용자의 이해 측면에서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를 청각영상으로 이루어진 기호로 파악했던 Ferdinand de Saussure는 기호는 숙명적으로 시간 속에서 운동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7](p.98).

사회적인 약속인 언어가 공시적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 통시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역사 속에서 바뀌는 존재론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데, 방송언어 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방송언어도 방송 전과를 매개로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일상 언어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8](p.298). 같은 맥락에서 방송뉴스의 전달 속도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한 사회의 문화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2.2. 뉴스 전달과 음악의 유사성

음악과 언어의 가장 근본적인 유사성에 대해 ([9], p.164)은 두 가지 모두 인간들 사이의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10](p.26)은 ‘인간이 소리

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체계가 언어와 음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모든 문화권이 각각 다른 언어와 음악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문화와 음악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 사회 어디에나 공통적이며 또 인간 사회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언어와 음악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로 말소리나 음악 소리는 아무렇게나 조합된 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의해 통제되고 구성되는 소리의 조직이며, 둘째로는 언어나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리 체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와 음악의 또 다른 공통점은 두 가지 모두 시간의 흐름에 근거한 의사 전달이라는 점이다. 즉 시간은 언어와 음악에서 필수 불가결한 차원이다. 나티에 [11](p.53)은 “만약 음악이 언어와 같이 선(線)적인 것, 즉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차원적인 것이다.”라고 했다. 그가 두 개의 차원이 무엇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 중 한 차원은 시간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의사 전달 수단에서 통시적인 측면 등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리학자인 John Sloboda [12](p.17, [9], p.167 재인용)는 언어와 음악의 공통점을 7 가지로 요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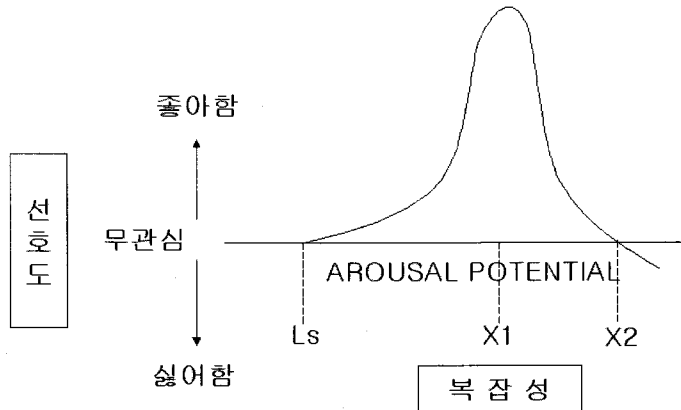
1. 언어와 음악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특징이자 인간 사회에만 국한된 특징이기도 하다.
2. 이 두 가지 체계 내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즉, 새로운 단어나 음악적 모티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3. 아이들은 언어와 음악 모두를 배우게 되는데, 그 방법은 자신이 속한 언어 음악 문화권 속에서 실례들에 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다.
4. 음악과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매개체는 인간의 성대와 청각기능이다.
5. 청각적 전달이 주된 매체라 하더라도 많은 문화권에서 시각적 기호체계(글이나 악보)가 발달하였다.
6. 언어나 음악을 듣는 기술은 만드는 기술보다 앞선다.
7. 자연발생적인 언어와 음악은 문화권마다 각각 다르더라도 하나의 특정 언어 안에는 모든 언어나 음악을 통제하는 공통적 보편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

2.3. 정보량과 수신자의 선호도, 수용 한계

인간은 점점 더 복잡한 것을 즐기면서도 그 복잡성이 자신의 인지한계를 넘는 순간 배격한다. [9](pp.271~274)는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분트(Wilhelm Wundt)의 이론을 바탕으로 벌라인(Daniel E. Berlyne)이 체계화 시킨 ‘정보량과 선호도’ 이론을 인용하여 음악의 수용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인지

한계'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인간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는 생리학적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 한계를 넘어선 음악은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 실험 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분트(Wilhelm Wundt)는 일반적인 자극잠재력(arousal potential)과 선호도(hedonistic value)의 관계를 <그림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론지었다. 여기서 분트는 수평축을 자극(stimulus), 혹은 자극의 강도(stimulus intensity)로 정의했고, 수직축은 자극 강도의 변화에 따라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선호도를 표시한다. 여기서 분트가 의미하는 자극의 강도에 대해 그의 추종자이자 계승자인 벌라인은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단다.

여기서 수평축은 자극의 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 속에서 자극의 정도를 높이는 제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자극잠재력(arousal potential)을 뜻한다. 이러한 잠재적 요소들이란 생물학적 의미나, 신기함이라든지 복잡함과 같은 묘사적인 요소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림 1> 분트 곡선(이석원, 1994: 273)

분트의 곡선을 해석해 볼 때 X2라는 지점을 지나면 왜 무관심(indifference)을 나타내는 중심 수평축보다 오히려 불쾌 쪽을 향해 치달을까? 심리학자들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우리 뇌 속에서 선호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본적으로 보상체계(reward system)와 혐오체계(aversion system) 두 가지이다.

보상체계란 자기가 무엇인가를 투자하여 투자한 것 이상을 보상 받을 수 있을 때 성립된다. 음악을 들을 때 감상자가 투자하는 것은 정신집중이며, 그 대가는 음악 속의 내용이다. 난도가 높은 음악을 들을 때, 감상자는 더 많은 정신집중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

신이 투자한 정신집중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때 보상체계는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수용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지났을 때 감상자는 더 많은 정신집중을 투자해도 더 이상의 내용을 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 보상체계는 증가하기를 멈추고 그대로 머무른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혐오체계가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보상도는 점점 하강하고 혐오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마침내 혐오도의 절대치가 보상도보다 더 커졌을 때, 선호도의 곡선은 무관심보다 더 낮은 수치를 향해 치닫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자신의 수용한계를 넘은 극도로 난해한 음악을 들을 때, 그저 무관심한 경지를 지나 고통의 경지에 이르는 이유는 복잡성에 관한 혐오감 때문이라는 것이 벨라인의 분석이다. 분트 곡선에서 보았듯, 인간 인지능력의 생리적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 이러한 음악은 듣는 사람에게 보상감 대신에 혐오감을 선사하도록 되어있다. 수용능력의 한계점은 개인에 따라 그 위치를 달리하겠지만 이러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에 공통적이라고 언급했다.

2.4 한국 보도방송언어의 시대적인 분류²⁾

2.4.1 방송 초창기 및 일제 강점기(1927~ 1945)

한국 최초의 방송이 개국한 직후 초기의 JODK 경성방송은 690Mhz의 단일 채널에 의한 한·일 양국어 혼합방송이었다. 처음에는 일본어와 우리말의 비율이 3대 1이었으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일간신문들이 일제히 격렬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곧 3대 2로 고쳤다고 하는데, 이 때 비율을 7대 3으로 적은 기록도 있고, 8대 2로 적은 사람도 있어 정확한 숫자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13](p.95).

초기 방송은 무엇보다 어종이 문제되는 시대였다. 이때의 방송은 일본어 위주였고 부분적으로 우리말로 번역 방송 됐으며, 연예오락 방송 정도가 겨우 순수 우리말로 방송될 뿐이었다. 우리말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33년부터다.

박갑수는 이 당시의 사정을 이해구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5](p.10).

“방송국 살림이 어떻게 구차하였던지 한일 아나운서가 각각 통신을 갖지 못하고 단벌을 돌려 썼다. 대개 일본 측이 통신을 뜯어 책상 위에 순서대로 죽 벌려 놓았다가 걷어가지고는, 체신국에 뉴스 제목을 전화로 덕택시키고 나서, 연필로 점을 꼭꼭 찍어 가며 읽어 내려가고, 어떤 때는 사전을 꺼내 찾기도 하였다. 일본인이 다 읽고 난 통신을 한국인은 받아 읽어야 했다. 그러나 받았을 때는 방송 개시 5분 전 쯤, 심할 때는 읽어 볼 시간조차 없었다. 또 그것은 한인 손에서 일인 손으로 도로 넘어가서 일본어로 방송되었다. 그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일본인 아나운서는 그 뉴스를 책상 위에 놓고 살그머니 나가버리고, 그 뒤에 묵묵히 서서 기

2) 보도 방송의 시대적인 분류는 [14]의 분류를 따랐다.

다린 한인 아나운서가 교대하여 한어로 고쳐 읽기 시작한다. 한인 아나운서에게는 뉴스를 미리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하고 방송 즉석에서 번역하면서 읽는 데도 벽찬 데다가 또 하나 짐이 있었다. 자기 전 사람이 소정 시간을 초과시켰으면 그 초과 시간만치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1960년).

1927년 첫 방송 무렵 뉴스방송의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KBS 방송 자료실에 보존된 가장 오래된 뉴스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경축식 소식이다. 하지만 2001년 5월 15일 한국방송진흥원이 주관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故 송영호 아나운서의 1939년 뉴스가 고인의 아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품에서 발견돼 한국의 보도방송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아나운서의 뉴스 내용은 2차 대전 전황 소식과 관련해 일본 황궁의 공식 발표문을 인용해 방송된 뉴스다. 이 뉴스에서는 일본 천황에 대한 극존칭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천황폐하께오서는, 거느리시옵고, 납시어, 시럽한 아래 사알하옵시며...” 등의 어휘들은 현대적인 방송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용어들이다.

2.4.2 해방과 6.25 전쟁, 전후 복구기(1945~1961)

1945년 8월 15일 정오를 기해 경성 중앙방송국에서는 일본의 패망을 알리는 천황의 육성을 방송하면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였다. 방송국의 일본인 직원들은 한국 측에 방송 시설을 그대로 인수인계한다는 조건 아래 미군이 주둔할 때까지 당분간 일본어 방송을 계속하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송을 하였다.

1945년 9월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면서부터 방송국을 장악하고 ‘조선방송협회’의 현업부서(당시의 방송제작 및 편성부)를 떼어내어 공보부에 예속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방송이 장차 국영방송이 되는 시초가 되었다.

1946년 10월 개편 확장된 군정하의 방송은 재정 또한 미군정의 감독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방송협회가 일본으로부터 인수한 예산의 잔고를 갖고 운영했다.

과거 일제하의 방송이 거의 20년이라는 역사를 쌓았지만 식민통치의 수단에 불과했던바 해방이 된 이후에도 편성 및 제작 등에 있어서 모든 면이 일본방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이 되고 제1방송에서 제대로 한국어 방송이 나간 것은 1945년 9월 9일 5시뉴스에서부터였다. 그 뒤 일본어 방송은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해방 뒤 아나운서들의 어조는 일본어의 어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딱딱하고 끊어서 발음하는 스타카토 형이었으며 변사조(辯士調)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으로부터 다시 인수받은 조선방송협회는 그 명칭을 대한방송협회로 변경해 정부의 공보처 방송국으로 흡수됐는데 방송사업의 국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으나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 실패했

다. 당시 방송의 국영화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정부조직법’이 전부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인명과 시설을 파괴한 비극적인 6.25 전쟁의 발발로 당시 10개 방송국 가운데 대구와 부산 방송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파괴되었다. 이때 중앙방송국은 부산까지 남하해 부산방송국에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제주 방송국을 개국해 전쟁 중에도 방송의 필요성과 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전쟁 후 1953년 8월 다시 직제개편을 통해 공보처의 방송관리기능과 방송현업 기능은 명확하게 구분됐으며 KBS는 본연의 업무인 방송 현업에만 전력할 수 있게 되었고 서울과 각 지방 방송국으로 분립하게 됐다.

1954년부터는 민간 방송국이 본격적으로 개국하기 시작했다. 1954년 민영방송 기독교방송(CBS)가 발족됐고 1956년엔 최초의 상업TV채널인 KLGZ가 개국했다. 또 1959년엔 부산 문화방송(MBC)이 개국했다. 그러나 이 당시는 국영방송이 주도 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6.25와 4.19 혁명 등 각종 굵직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혼란의 시기였고 방송 또한 시대 여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여건과 달리 이 시기부터 방송계 내부에서는 방송 언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당시 공보실 방송관리국에선 ‘방송’지를 내며 방송 언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이 당시 방송 언어의 문제로 제기된 것은 비표준어의 사용, 외래어 및 한자어의 남용, 틀린 발음과 장단음의 혼란 등이었다.[15](p.80).

이 시기 뉴스는 독재정권 치하에서의 언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대통령에게는 물론이고 장관들에게까지 ‘받으시었습니다, 청하시었습니다’ 등의 경어를 사용했다. 또 일부 방송에서는 신문을 많이 인용하면서 신문의 문장구조와 문어체적인 상투어가 많이 쓰였다. 방송 언어가 수용자 중심의 언어로 굳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 이후의 방송 언어는 정치계 인사들에 대한 극존칭 서술어가 많이 사라지고 구어체적 표현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2.4.3. 상업방송기 (1961년~1979년)

1960년대와 7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라디오와 TV 수신기를 생산하면서 보급이 촉진되고 민영상업방송이 5.16 이후 정부의 강력한 공업화 정책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더불어 번창하며 방송이 크게 발전하는 시기다.

1961년 12월엔 우리나라 두 번째 상업방송인 한국문화방송국(MBC)과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 TV)가 개국했고 63년 4월엔 동아방송(DBS)가 동아일보 산하 방송국으로 개국해 하루 14시간 30분의 방송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64년 5월엔 또 하나의 상업방송으로써 ‘라디오 서울’이 HLCZ에서 HLCK로 변경하면서 새롭게 출발했다. 라디오 서울은 1965년 8월 ‘중앙 라디오’로 이름을 바꾸었

다가 66년 1월 ‘중앙TV’와 합병하면서 ‘중앙방송’으로 개칭했고, 그 해 8월 ‘동양방송(TBC)’로 이름을 바꿔 하루 21시간씩 방송했다.

서울에 상업방송인 MBC가 개국하면서 서울 시민들은 국영방송 KBS와 종교방송인 CBS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채널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로써 KBS가 독점적으로 방송하던 때와는 달리 KBS와 MBC·TBC·CBS·DBS 등 5개 방송사가 각각 시청률 경쟁을 벌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독특한 방식으로 시청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도됐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아 프로그램의 질이 저속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방송사들 간에 유능한 인재들을 서로 스카우트하려는 인재 쟁탈전이 벌어져 각 방송사들마다 극심한 인재난을 겪었다. 이 때문에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많은 사람이 방송에 출연하게 돼 ‘나오는 대로 말한다’는 위험 수위까지 갔다는 비판을 받으며 방송 언어가 극도의 혼란을 빚었다.

방송언어의 저속성이 계속 지적되면서 이 시대에 이르러 방송언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다듬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게 됐다.[15](p.17) 또한 이때부터 자유당 시절에 많이 사용하던 ‘대통령각하께서, 각하께옵서’ 따위의 말투는 쓰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역(逆)피라미드형 기사 문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복잡한 중문과 복문이 이어지는 긴 문장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다.

1970년대의 방송언어는 다소 순화·정리됐다. 그것은 1976년 이후 국어순화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며 방송인들이 자각을 하고, 정부 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접어들어 방송언어에서 본격적으로 구어체가 확립됐으며, 많은 한자어가 우리말로 순화됐다. ‘오름세(상승세)와 내림세(하락세)’, ‘웃돌다(상회하다), 밑돌다(하회하다), 사재기, 머리기사(톱뉴스)’ 등과 같이 순수한 우리말을 즐겨 사용하는 예가 늘어났다.

2.4.4. 공영방송기 (1980~현재)

1980년에는 언론이 통폐합되고 언론기본법이 공시됐다. 이로 인해 종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으로 이원화됐던 방송은 공익 우선의 공영방송 체제로 바뀌어 KBS와 MBC의 2대 네트워크로 전환됐다. 또한 언론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방송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문제됐던 상업방송의 언어 혼란 문제는 일단 제도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리고 종래 방송윤리위원회가 담당해 오던 방송언어 순화와 이에 대한 제도 작업을 방송심의위원회가 관장하면서 방송언어의 문제는 점차 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15](p.35).

이 시기의 가장 특기할 만한 사실은 KBS 제1TV의 컬러 시험방송으로 컬러TV

시대를 개막한 것이다. MBC와 KBS 제2TV 또한 1980년 12월 22일 컬러 방송을 개시하면서 전 TV가 컬러화됐다. TV 방송의 컬러화와 함께 본격적인 색채문화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컬러 TV수상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컬러 TV시대가 전개된 80년대 초반부터 방송은 커다란 자체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라디오와 TV의 특성을 살려 라디오 보도 부문의 속도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TV 방송은 ‘생동감과 친근감이 넘치는 영상 언어’로 생생한 전달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방송 언어 또한 기존의 전형적 틀에서 벗어나 생활 구어체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된다.

1980년대 초의 방송언어는 구어체와 격식체가 동등하게 주종을 이뤘지만,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격식체가 차츰 감소하고 구어체의 세력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신문의 경우 아무리 용어를 쉽게 표현해서 이른바 ‘읽기 쉬움(readability)’에 유념해 기사를 쓴다 해도 결국 문자를 ‘읽는’ 지적(知的)인 작업(operation intellectual)이 수반돼야 한다. 이 때문에 방송 언어를 듣는 것보다 부담을 갖게 된다. 신문 문장엔 이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방송 문장과 신문 문장은 매체적인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문장 체계를 갖게 된다. 1980년대는 바로 이러한 신문 문장과 방송 문장의 분화가 명확하게 이뤄지기 시작한 시기다.

2.5. 방송언어 선행 연구

우리나라에서 방송 언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최초의 인물은 방송인 심우섭이 꼽힌다.³⁾ 이 땅에 처음으로 전파가 발사된 1927년 당시는 불행히도 이민족의 지배를 받던 일제 강점기였다. 따라서 방송 언어의 개념이 정립될 여지가 없었다. 이후 1931년 우리말로 송출되는 제 2 방송이 시작된 이후 심우섭은 경성 방송국의 3대 제 2 방송 과장으로서 아나운서들에게 도제식 교육으로 바른 방송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13](p.141,157). 그러나 방송언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한 것은 박갑수[15](p.22) 등에 따르면 1960년대 민영 방송이 출현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83년 KBS에 ‘한국어 연구회’가 조직되면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입장에서 논리적인 문장 구성, 맞춤법, 사투리의 어휘, 외래어의 표기와 발음 등 언어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표준어의 발음과 억양, 강세에 대한 연구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부분 중에서도 유사언어

3) 한국방송협회(1997)의 ‘한국 방송 70년사’ 참조. 아나운서실의 선배로 이어지는 도제식 교육 전통은 이혜구(1960), 조봉연(1982) 등의 증언을 따르면 3대 제 2 방송과장이었던 심우섭에 의해서였다고 전해진다. 심우섭은 1938년에 일제의 어문 정책에 저항해 사표를 제출한다.

(para-language)에 해당하는 발음과 억양, 강세, 말의 길이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개괄해 보면 1983년 10월에 [16]의 ‘한국어 표준 발음의 현황과 음성 교육의 중요성’을 비롯해 [17]의 ‘시청자와 방송언어’, [18]의 ‘방송 언어와 표준 발음’, [19]의 ‘방송화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소고’, [20]의 ‘복합어 및 파생어에 있어서 발음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메시지 전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음성언어의 운율적 자질에 대한 연구는 IT산업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하며 음성 인식과 합성 분야 쪽에서 ‘대한음성학회’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21]의 ‘말소리의 합성과 인식을 위한 음성언어학적 고찰’과 [22]의 ‘음성 합성기술의 발달’, [23]의 ‘한국어의 리듬’, [24]의 ‘방송언어의 속도에 대한 연구’, [25]의 ‘방송언어의 억양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 [26]의 ‘한국어 말소리의 길이’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메시지 전달의 효율성을 다룬 논문으로 [27]의 ‘텔레비전 메시지 전달 효과에 관한 연구’와 [28]의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의 전달력 향상을 위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언어적인 표현 중 ‘몸짓 언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고, 후자의 경우[28]는 뉴스 문장의 구성과 음성 전달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뉴스 전달 방식에 따라 뉴스의 전달력이 크게 좌우됨을 주목하고 언어적인 측면 외에 뉴스 문장의 구성 방식과 정확한 발음, 끊어 읽기와 억양,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메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비언어적인 표현 기법에 대한 연구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연구를 보면, [29]는 그의 논문 ‘방송 언어의 평가 기준 및 문제 언어의 비교 분석’에서 독특한 방송 언어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바람직한 방송 언어의 속성을 순정성, 공식성, 공손성, 공정성, 세련성의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이후 일상성을 추가하여 6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오미영[30]은 ‘TV토론 출연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에 대한 요인 분석’에서 커뮤니케이션 수행 능력의 구성 요인을 이미지, 카리스마, 적합성, 전략성, 유사언어, 신체언어, 인상관리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본 주제와 가장 부합되는 연구는 바로 [24]를 들 수 있다. 발화 속도에 대한 연구는 이미 외국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측정치가 제시되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한 형편이었다. 예를 들면 미국 영어 뉴스의 경우 한 줄이 평균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바람직한 속도로 1분에 16줄, 즉 1분당 160단어 정도를 낭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4](p.9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한국어 연구부에서 제시한 뉴스 전달 속도에 대한 연구가 최초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음성언어의 중요성과 특성에 대해 음성 언어를 직접 실현하는 직업군인 아나운서 직종의 필요에 의해서라고 추측된다. 이 연구 결과 제시된 평균 1분당 뉴스진행 속도는 345음절이었고, 이 평균치에 5% 내외의 차이는 전달력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않는 개인차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후 [31]의 ‘유사언어가 방송메시지 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 각 지상파 라

디오 방송사 아나운서들의 뉴스 속도를 파악하여 평균치를 제시하였는바 1분당 370음절 내외로 90년대 초에 비교하여 20여 음절 빨라진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방송언어 발화 속도에 대해서 시대적인 비교를 시도했던 [32]는 반세기 전 1분당 속도가 300음절임을 제시하여 현재와 비교하여 발화 속도가 월등히 빨라졌음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연구 중에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3], p.98 재인용) 영국 BBC 시청자들을 인터뷰한 Levy[33] 등은 많은 방송기자들이 전달 속도를 늦추면 시청자들이 흥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반증하는 예로 BBC 텔레비전이 청각 장애자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에 방송하는 주간 뉴스 요약 프로그램을 많은 일반 시청자들도 시청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음성언어를 통한 정보의 전달 속도를 연구한 대부분의 실험 연구들은 일정 속도를 웃돌면 메시지를 청각적으로 지각하고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34]의 연구에 의하면 매분 141, 201, 282단어를 사용하여 실험 집단에 들려준 경우는 이해도에서 별 차이가 없었으나 분당 470 단어로 증가시켰을 때는 이해도가 58%에서 26%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또 [35]의 연구에서도 분당 125단어까지는 이해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250 단어 이상으로 전달 속도가 빨라지면 이해도가 급속히 떨어졌다. 이 외에 [36]는 실제 뉴스처럼 800단어로 구성된 5분짜리 뉴스 두 개를 제작하여 실험 집단에 제시하였는데, 한 개는 하나의 주제만을 심층적으로 다룬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12개의 주제를 다룬 것이었다. 아나운서가 두 메시지를 분 당 160, 190, 220, 250 단어의 속도로 낭독한 결과 단일 주제의 경우는 220단어이후부터 기억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반면 복수 주제로 구성된 메시지의 경우 190단어부터 기억도가 하강함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가 영어를 이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말과는 차이가 있겠으나 전달 속도에 따라 기억도나 이해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3.1 자료 수집과 조사 대상

2000년대 현재 라디오 뉴스 음성 전달 속도의 개인차와 평균 전달 속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31]의 연구 결과를 준용했다.⁴⁾ 실험 대상을 선정할 기준은 뉴스 전달의 정확성과 유창성에 두었다. 즉, 비교적 오독이 없고, 표준적이며 균질

4) 조사 기간은 2004년 4월 22일부터 5월 21까지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말을 구사하는 아나운서군에서 각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의 정오 뉴스를 무작위로 선별하였다. 이어 2003년 7월 이후 정보 채널을 표방하며 24시간 뉴스 채널로 정착한 KBS 제 1라디오의 정시 뉴스를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즉 MBC(문화방송), SBS(서울방송), TBS(교통방송), CBS(기독교방송), BBS(불교방송)의 뉴스 1회분을 선별하여 1분 당 발화 속도를 측정하였다.

각 방송사의 정오 뉴스 진행자를 선별한 이유는 이들이 전달력과 유창성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캐스터들로서 균질한 방송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뉴스 전문 채널을 표방하는 KBS 제 1 라디오의 경우도 매시 정시 뉴스 시간이 10분으로 통상 5분 뉴스를 진행하는 진행자들보다 전담 진행자 군이 안정적인 뉴스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룹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 일제 강점기와 1950년대와 60년대 방송뉴스 진행자의 전달 속도 측정 기간은 2007년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분석 대상은 1939년도 뉴스와 1950년대와 60년대 자료 중에서 선별하였다. 자료 선택에 있어 어려움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녹음 자료가 빈약하다는 점이었는데, 있다 하더라도 방송 형태가 뉴스가 아닌 기념식 실황 중계나 영결식 실황 등이 많고 정통 뉴스 녹음 자료는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문자 언어와 달리 음성언어를 연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짐작케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제 강점기의 녹음 자료는 개인적으로 입수한 것으로 현재 가장 오래된 뉴스 자료로 알려져 있다. 1939년도 '경성방송' 송영호 아나운서의 뉴스 녹음을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50년대와 60년대 뉴스는 KBS의 방송 콘텐츠 통합 자료실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50년대 뉴스 자료는 '대한 뉴스'에서, 60년대 뉴스 분석 대상은 '대한 뉴스'와 'KBS 뉴스', 민영 상업 방송인 '동아 방송 뉴스'에서 추출해 측정하였다.

3.2.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이번 연구에서 측정한 뉴스를 비롯한 시사 정보 프로그램 총 아이템 수는 라디오 뉴스 22개이다. 이중 일반 뉴스가 16개 아이템, 대한뉴스가 6개 아이템이다. 음성 표현 속도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오로지 방송된(녹음에 의한) 자료만 활용하여 1분 동안에 표출된 음절수로 변환 측정했다. 조사된 수치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고 1분간 지속되는 뉴스가 없을 경우 1분 단위로 환산한 어림수임을 밝혀둔다. 측정 대상 뉴스는 SONY DAT를 이용해서 녹음하고 컴퓨터 음성파일로 변환한 후 KBS의 음성 파일 컴퓨터 프로그램인 D-CART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방송된 뉴스 문장을 녹취 기록한 후 표출된 음절수를 계산했다. 이중 '대한 뉴스'

5) 이 땅에 첫 전파가 발사된 1927년 2월 16일 이후 현재 녹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임. 2001년 5월 15일 한국방송진흥원이 주관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송영호 아나운서의 육성 뉴스로 고인의 아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품에서 발견된 것임.

는 배경 음악이 깔려 있어 한 꼭지인데, 문장 단락 사이에 음악이 삽입되어있는 경우에 음악 구간은 삭제하고 뉴스 낭독 부분만 음절수를 측정하여 합산하였다. 음절의 측정에 있어서는 우리말의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구별이 없이 모두 한 음절로 측정했으며, 수의 표현이나, 외래어와 외국어 등도 최종적으로 우리말 음절 표현에 기준을 두고 측정했다. 예를 들면 '25'는 '이십오'로 발음했으면 3음절이며, '6.25'는 '육이오'로 발음했으면 역시 3음절로 측정했고, cm, %, KBS 등은 센티미터(4음절), 퍼센트(3음절), 케이비에스(5음절) 등의 음성 표현 음절로 측정했다. 또한 기본적인 측정 시간은 1분 단위로 설정, 표출된 음절수를 전체 1분의 음절수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발화속도(speech rate)는 조음 속도(articulation rate)와 말속도(speaking rate)로 분류되는데, 뉴스 전달은 문장 단위로 발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말속도만을 측정하였다.⁶⁾

4. 연구 결과

4.1. 일제 강점기 라디오 뉴스 전달 속도 측정 결과: 분당 217음절

가장 오래된 뉴스 녹음자료로 일제 강점기 1939년도 송영호 아나운서 뉴스의 경우 분당 측정치가 217음절로 측정되었다. 현재의 청취자가 들으면 대단히 느리고 어눌하다고까지 생각될 정도로 느린 속도였다. 화법 자체도 대단히 느려서 [15]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이해구씨의 증언대로 푹푹 끊어 읽어 마치 음악에서 스타카토를 연상하게 하는 생소한 화법이었고, 또한 일왕에 대한 극존칭의 표현은 현재의 보도문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한국어를 말하면서도 우리말이 아닌 듯한 일본어의 억양이 느껴지는 생경한 화법이 었다. [15]가 인용한 이해구의 증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나운서는 뉴스를 읽을 때, 일본말 어조와 같이 말을 뻗뻗하고 푹푹 끊지 말고 보통 우리말같이 자연스러운 어조로 유창하게 고치기에 힘을 드렸다. 그러나 한번 굳어 버린 뉴스 방송의 어투는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 (이해구 1960)

이해구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한일 혼합 방송이었고 특히 보도 방송의 경우 일본어 방송이 주였고 한국어 방송이 부차적인 형편이어서 이 당시만 해도 아나운서들은 그야말로 읽는 데 급급해 표준어의 개념도 없던 시대였던 듯하다. 따라서 아나운서의 전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고 유추된다.

6) 조음속도= 표출된 음절수/ (총발화 구간-휴지부 구간)

말속도 = 표출된 음절수/총 발화 구간의 길이 ([37], [32]에서 재인용)

이밖에 일제 강점기 당시 뉴스 속도가 200음절 대였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북한의 방송원들을 위한 교본으로 북한 아나운서들에게는 교과서격인 [38](p.233)의 ‘화술통론’에서도 알 수 있다. 리상벽은 보도방송의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반인의 화술과 다르게 인명이나, 지명, 수치 등을 말할 때는 천천히 강조하여 읽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1분 당 260~270자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광복 이전 아나운서들의 뉴스 낭독은 300음절 이상을 상회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은 39년도 뉴스 녹취원고 원문이다.

* 1939년 10월 30일 ‘경성 방송 뉴스’-송영호 아나운서(남) 녹음자료: 분당 217음절

천황폐하게오서는 탕천 내무, 송평 궁성, 백무 시종장 등을 거느리시옵고, 오전 10시 동일관에 남시어 미내 수상, 아옥 내상 등도 시립한 아래, 포청 북해도 장관에게 사알하옵시며, 장관은 공손히 관하의 상황에 관해서 주상하고, 이어서 폐하게오서는 청산 암수의 차례로 각 현 지사들을 차례로 사알하옵시고 강전 동경부 지사에 뒤이어서 안배 경시총감, 평림 헌병 사령관 등에게도 사알하사 주상을 청취하오셨습니다.(167음절/46초)

4.2. 1950년대 라디오 뉴스 전달 속도 측정 결과: 분당 335음절

6.25 전쟁 이후 50년대 뉴스 측정치를 보면 일제 강점기와 비교해 전달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고, 일제 강점기 당시 변사조의 화법과는 많이 달라져 비교적 현대의 화법에 근접했음을 알 수 있다. 54년 남성아나운서가 338, 58년도 남성과 여성 아나운서의 녹음 측정치가 각각 337, 330음절로 성별에 차이가 없이 비교적 고른 편이었다. 지금 들어도 전달력이 우수하고 음가 실현이 상당히 정확한 편으로 현재 아나운서들의 방송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유창한 낭독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당시 녹음 자료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직 ‘대한뉴스’ 3개 아이템에서만 녹취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 뉴스를 담당했던 아나운서들은 당대 최상급의 낭독실력을 인정받은 최고의 아나운서들이었기에 뉴스 낭독능력이 균질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한다. 다음은 50년대 뉴스 녹취 원고 원문이다.

* 1954년 ‘대한 뉴스’-남자 아나운서 녹음자료: 분당 338음절

10월 1일 부로 유엔군 총사령관직을 이임하게 된 마크 클라아크 장군이 그 후 임으로 취임하게 된 현 혈 대장과 함께 2일 정오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비행장에는 손 국방장관, 백 육군 총 참모장, 브릭스 미국 대사, 헤일러 8군 사령관 등이 영접했습니다. 대통령 각하를 예방한 두 장군은 이임과 취임의 인사를 교환한 다음 대통령께서는 떠나는 클라아크 장군에게 금성 태극 무공 훈장을 친히 수여하셨습니다.(169음절/30초)

* 1958년 ‘대한뉴스’-강찬선 아나운서 녹음자료: 분당 337음절

국산품 애용으로 자립경제 이룩하자. 양담배를 물리치는 첫 요건으로 우리 아리랑 담배도 그에 못지않은 품질로 개량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휠타 담배인 아리랑은 처음에는 휠타의 질이 나빠 애연가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그 휠타도 양담배와 같은 아세테트로 개량되어 어느나라 담배에도 못지않은 우량품으로 만들어져서 지난 11월 7일부터 판매됐습니다. 국가 재정을 좀먹는 양담배를 물리치고 건전한 자립경제를 확립하는 일은 우선 국산 담배의 애용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185음절/33초)

* 1958년 ‘대한뉴스’-여자 아나운서 녹음자료: 분당 330음절

불수룩 귀여운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3일부터 이틀간 파랑새회에서 베푼 정부 수립 10돌 기념 파랑새 잔치가 시공관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다가 온 것같은 귀염둥이들이 해마다 노래와 춤의 재롱을 부리는 데에는 정말 사랑을 담백 지닌 어른들의 박수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132음절/24초)

4.3. 1960년대 라디오뉴스 전달 속도 결과: 분당 346음절

60년대 자료는 ‘대한 뉴스’ 3개 아이템과 ‘KBS 뉴스’, ‘동아방송 뉴스’ 각각 1개씩 5개 아이템을 선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측정치 범위는 상당히 벌어져 있어 심한 편차를 보였는데 최저치가 316음절로 1967년도 ‘대한뉴스(남)’에서 발견되었고, 최고치는 391음절로 1965년도 상업 민영방송인 ‘동아방송 뉴스(남)’에서 측정되었다. 그런데 1분 당 390음절이라는 수치는 현재 속도의 평균값이 370음절 내외인 것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도 대단히 빠른 속도에 해당된다. 극단적인 최소값과 최고치를 제외한 수치는 각각 337, 344, 357음절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측정 평균값은 346음절이었다.

60년대 들어 특징적인 점은 앞서서도 언급한 대로 진행자 사이에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휴전 이후 미국 대중음악을 비롯한 서구 문화의 유입과 민영 상업 방송의 등장, 그리고 스포츠 중계방송이 등장한 시기와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겪은 시기이다. [39]은 국내 텔레비전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의 효시는 1956년에 개국한 상업 방송 HLZK-TV가 그 이듬해 고교 축구 선수권대회를 중계한 것이 최초라고 인용·명시했는데, 이후 축구와 야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스포츠 중계방송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문화의 최 일선에서 활약하던 아나운서들도 이와 같은 변동에 민감했을 것이고, 특히 스포츠 중계를 담당하던 아나운서들의 경우 전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⁷⁾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남한의 화법과 북한의 화법 간의 차이가

7) 원로 아나운서인 박종세 씨는 60년대를 풍미했던 당대 최고의 야구 중계 아나운서였다.

나기 시작한 시점도 60년대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이미 외래 문물의 유입으로 개방된 남한에서는 1분 당 390음절의 빠른 속도로 낭독하는 진행자가 등장한 데 비해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북한 아나운서들의 전달 속도가 1980년대에도 여전히 일제 강점기와 비교해 별로 빨라지지 않은 1분당 260~270음절[40]인 것을 감안하면 60년대야말로 이후 남북한 간의 음성 표현 속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아래는 녹취한 뉴스원고 원문과 일제 강점기를 비롯한 과거 뉴스 전달속도 측정 결과 수치를 정리한 표이다.

* 1964년 6월 3일 'KBS 뉴스'-남자 아나운서 녹음자료: 분당 337음절

윤보선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은 오늘밤 최두선 국무총리에게 일부 대학생들의 대모로 일어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현재 한일회담을 즉시 중지할 것과 구속될 학생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보선 씨는 오늘 밤 8시 30분 국회 나용근 부의장실에서 최두선 국무총리와 전화로 연락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번질지도 모르는 대일 굴욕외교 반대를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174음절/31초)

* 1965년 3월 1일 '대한 뉴스'-남자 아나운서 녹음자료: 분당 357음절

민족의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음으로서 일제에 항거했던 기미년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제46회 3·1절 경축식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수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오후 두시 파고다 공원에서는 33인 중 고인이 된 32인에 대한 제14회 합동 추념식이 베풀어졌습니다.(137음절/23초)

* 1965년 8월25일 '동아방송 뉴스'-남자 아나운서 녹음자료: 분당 391음절

고대 교수들은 결의문을 통해서 헌병들이 연행해간 학생을 즉시 석방하라, 정부는 공개 사과하고 국방장관과 관계 장관을 인책하라, 학원에 난입한 관계 장교를 색출해서 엄중 처단하라, 군인들에 의해서 파괴된 본 대학 시설과 기물을 즉시 변상하라, 정부 당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보장하라는 등 다섯 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137음절 / 21초)

* 1967년 12월 23일 '대한 뉴스'-박종세 아나운서 녹음자료: 분당 316음절

금년에는 해상과 육상에서 커다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1명의 생명을 바다가 앗아간 여객선과 해군 구축함의 충돌사고, 40여 불교 신도의 지극했던 불심과 효심을 앗아간 금릉 교통사고는 인명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밤 9시 54분 경상남도 창원군 천가면 가덕도 서쪽 1마일 해상에서 2500톤급 해군 호위 구축함과 140톤 짜리 목선인 부산 여수항 여객선 한보가 충돌했습니다.(174음절/33초)

* 1969년 '대한 뉴스'-남자아나운서 녹음자료: 분당 344음절

싸우면서 건설하는 새해. 박정희 대통령은 올 들어 처음으로 각 도 지방 시찰

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시찰에서 박 대통령은 춘천 경공업 단지를 연내 완공하라고 지시하고, 소양강댐 수몰 지구에 대한 69년도 보상금을 정부의 추가 예산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확보, 전액을 일시불할 것도 건설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할 것도 아울러 당부했습니다.(166음절/29초)

<표 1> 과거 일제 강점기를 비롯한 50년대, 60년대 뉴스전달 속도 측정결과

녹음연도	아나운서	방송 형태	1분간 음절수	문장음절수/소요시간(초)
1939	송영호	경성 방송 뉴스	217	167 / 46
1954	(남자)	대한뉴스	338	169 / 30
1958	강찬선	대한뉴스	337	185 / 33
1958	(여자)	대한뉴스	330	132 / 24
1964	(남자)	KBS 뉴스	337	174 / 31
1965	(남자)	동아방송 뉴스	391	137 / 21
1965	박종세	대한뉴스	357	137 / 23
1967	(남자)	대한뉴스	316	174 / 33
1969	(남자)	대한뉴스	344	166 / 29

4.4. 2000년대 현재 라디오 뉴스 전달 속도 측정 결과: 분당 371음절

주로 아나운서들이 담당하고 있는 라디오 낭독형 뉴스는 방송의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전달 방법이다. 측정 결과 분당 측정치의 범위는 최저 272음절에서 최고 484음절로 40대 후반의 여성과 30대 후반의 남성 캐스터(아나운서)의 발화 속도의 차이는 무려 1분당 212음절의 차이를 보여 개인별 발화 속도의 범위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분당 평균 뉴스 전달 속도는 6개 각 지상파 방송사 정오뉴스 담당아나운서들의 발화 속도를 평균한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 방송 녹음 자료에 나타난 아나운서들의 경우 경력이 중견 이상의 남성 아나운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동일한 경력과 방송능력을 고려하였다.

평균 전달 속도 값은 분당 371음절로 나타났다. 아래는 측정 결과표이다.

<표 2> 2000년대 현재 라디오뉴스 전달속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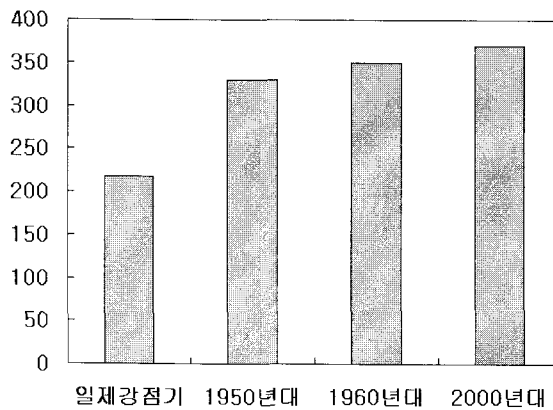
담 당 자	방송 형태	1분간 음절수	문장을절수 /소요시간(sec)
캐스터1(남)	KBS 정오 뉴스	372	223 / 36
캐스터2(남)	MBC 정오 뉴스	362	214 / 35
캐스터3(남)	SBS 정오 뉴스	376	219 / 35
캐스터4(남)	TBS 정오 뉴스	372	163 / 26
캐스터5(남)	BBS 정오 뉴스	375	247 / 40
캐스터6(남)	CBS 정오 뉴스	370	198 / 32
캐스터7(남)	KBS 9시 뉴스	378	258 / 41
캐스터8(여)	KBS 10시 뉴스	369	203 / 33
캐스터9(남)	KBS 11시 뉴스	340	300 / 53
캐스터10(남)	KBS 13시 뉴스	348	116 / 20
캐스터11(남)	KBS 15시 뉴스	364	346 / 57
캐스터12(여)	KBS 16시 뉴스	272	241 / 53
캐스터13(남)	KBS 18시 뉴스	484	202 / 25

관찰 결과 특이한 점은 예상보다 캐스터 개인별 진행 속도의 차이 범위가 넓었다는 점이고,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균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뉴스를 전달한다고 간주되는 그룹인 각 방송국 ‘정오 뉴스’ 캐스터들의 속도가 1분당 362~376 음절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속도에 따른 청취 소감이 확연히 구분되었는데, KBS 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300 음절 이하가 되면 느리게 감지되었고, 350 음절 정도면 차분하다고 인식되었으며 내용 전달이 잘 된다고 응답했다. 370음절 내외에서는 리듬감과 아울러 유창하다는 느낌이었고, 400음절 내외에서는 빠르다는 느낌과 음가가 탈락,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전달 속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뉴스 캐스터들은 적어도 분당 370음절 정도의 속도로 낭독해야 유창하여 독보력이 좋고,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과에 대한 논의와 제언

지금까지 방송 메시지 전달 속도의 통시적 변화를 주제로 시대별 라디오 뉴스 녹음 자료 분석을 통해 전달 속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2004년 현재 뉴스 전달 속도(말 속도)는 1분당 370음절 내외, 일제 강점기는 220음절 내

외, 1950년대는 330음절 내외, 1960년대는 350음절 내외인 것으로 측정되어 과거와 비교하여 뉴스 전달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2>는 시대별로 나타난 뉴스 전달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 의하면 평균값의 변화에 있어 일제강점기와 비교하여 현재 수치와는 150음절의 차이가 난다. 68%가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50년대는 현재와 비교하여 음절수로는 40음절, 12%가 빨라졌고, 60년대의 경우 현재와 대략 20음절의 차이가 있었고, 6%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시대별 라디오 뉴스 전달 속도 측정 그래프(분당 음절수)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미 <표 1>과 <표 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진행 아나운서의 방송 능력과 특성에 따라 개인차가 심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미 [25]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과거의 방송 속도라고 하여 모든 아나운서의 진행 속도가 일률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인 1965년에도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인 분당 390음절로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2004년 현재도 300음절 내외로 전달하는 아나운서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호흡에 실려 실현되는 음성언어를 구사하는 작업이 얼마나 개개인의 발화 차이가 심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거 녹음 자료가 빈약한 상태에서 전달 속도를 측정할 수치의 정확도를 가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남아있는 자료에서나마 수치를 비교하여 과거 속도와 현재의 수치를 비교해 봄으로써 시대적인 변화의 면면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해 나갈 양상을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진

행자로 하여금 수용자를 대상으로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전달(genuine delivery)을 하기 위한 기법으로, 더 나아가 단순한 전달을 넘어 공감하고 느낌을 공유하기 위한 전달 기법으로서 전달 속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인지심리학적인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용자의 인식조사가 후속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M.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MIT Press, 1964, 박정규 역,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7.
- [2] J. Singer, "The power and limitation of television: A cognitive affective analysis", In P. Tannenbaum (ed.), *The Entertainment Function of Television*. Hillsade, N.J.: Lawrence Erlbaum, 1980.
- [3] 이창근, "텔레비전 뉴스의 전달방식이 기사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기억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 *방송문화연구*, 한국방송공사, 1989.
- [4] C. Hausman, L. O'Donnell, P. Benoit, *Announcing-broadcast Communicating Today*, 4th ed., Wadsworth Thomson Learning, 2000.
- [5] 김은우, "디지털 방송 시대의 문화 정체성", *방송문화*, 10월호, 2003.
- [6] J. Walter Ong, 이기우,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 [7] 김성도, *현대 기호학강의*, 민음사, 2002.
- [8] 김상준, *방송 언어 연구*,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7.
- [9] 이석원, *음악 심리학*, 심설당, 2002.
- [10] W. Bright, "Language and music: areas for cooperation", *Ethnomusicology*, Vol. 7, pp. 26-32, 1962.
- [11] J. J. Nattiez, "Linguistics: a new approach for musical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Aesthetics and Sociology of Music*, Vol. 4, No. 1, pp. 1-68, 1973.
- [12] J. A. Sloboda, *The musical Mind: The Cognitive Psychology of Mus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13] *한국방송70년사*, 한국방송협회, 1997
- [14] 김상준, *남북한 방송보도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1.
- [15] 박갑수, "방송언어의 변천개관", *방송언어 변천사*, 서울, KBS한국어 연구회, 1987.
- [16] 이현복, "한국어 표준 발음의 현황과 음성 교육의 중요성", *한국어 연구 논문 3집*, KBS 아나운서실, 1983.
- [17] 김상준, "시청자와 방송언어", *KBS 한국어 연구 논총*, 1985.
- [18] 이철수, "방송 언어와 표준 발음", *방송 언어 변천사*, KBS 아나운서실, 1985.
- [19] 이주행, "방송화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소고", *KBS 한국어 연구회 논문 11집*, 1986.
- [20] 서재원, "복합어 및 파생어에 있어서 발음문제", *KBS 한국어 연구회 논문 11집*, 1986.
- [21] 이현복, "말소리의 합성과 인식을 위한 음성 언어학적 고찰", *한국어 연구 논문*, 3권, KBS 아나운서실, 1986.

- [22] 안수길, “음성 합성기술의 발달”, *KBS 한국어 연구회 논문 15집*, 1986.
- [23] 이호영, “한국어의 리듬”, *한국어 연구 논문*, 28권, KBS 아나운서실, 1991.
- [24] KBS 한국어 연구부, “방송 언어의 속도에 대한 연구”, *KBS 한국어 연구회 연구 논문*, 31권, 1991.
- [25] 지민제, “방송언어의 억양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 *한국어 연구 논문*, 35권, KBS 아나운서실, 1993.
- [26] 지민제, 한성수, 김윤기, “한국어 말소리의 길이”, *한국어 연구논문*, 45권,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 1996.
- [27] 최 선, “텔레비전 메시지 전달 효과에 관한 연구”, *방송 언어 연구논총*, KBS 아나운서실, 1987.
- [28] 홍종선,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의 전달력 향상을 위한 연구*, 1996.
- [29] 임태섭, “방송언어의 평가 기준 및 문제 언어의 비교 분석”, *방송연구 42 여름*, 1996.
- [30] 오미영, *TV토론 출연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에 대한 요인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 논문, 2002.
- [31] 박경희, “유사언어가 방송메시지 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석사 논문*, 2003.
- [32] 신지영, “방송언어 발화 속도의 사적인 변화”, *방송과 우리말*, MBC 우리말위원회, 2004.
- [33] M. R. Levy, J. P. Robinson, D. K. Davis, *The main source: Learning from television news*, Beverly Hills: Sage, CA., pp. 224-225, 1986
- [34] G. Fairbanks, N. Guttman, M. Miron, “Auditory comprehension in relation to listening rate and selective verbal redundancy”,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Vol. 27, pp. 23-32, 1975.
- [35] E. Foulke, “Listening comprehension as a function of word rat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8, pp. 198-206, 1978.
- [36] J. Smith, W. McEwan, “Effects of newscast delivery rate on recall and judgement of sources”, *Journal of Broadcasting*, Vol. 18, pp. 73-83, 1974.
- [37] J. Laver, *Principles of Phone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38] 리상벽, *화술 통론*,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1964.
- [39] 전규찬, “문화개방의 시대 미디어문화연구와 문화정책”, *한국언론학보*, 43권, 3호, 1999.
- [40] 리상벽, 김수희, 신덕홍, *방송원 화술*, 예술 교육 출판사, 1988.

접수일자: 2007년 11월 12일

게재결정: 2007년 12월 15일

▶ 박경희(Kyung-hee Park)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한국방송공사

소속: KBS 한국어팀 아나운서

전화: 02) 781-3848

E-mail: agnes@kbs.co.kr